

### 2013년 첫 헌신예배 드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드러진 '주의 종 헌신예배', 헌신자들은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참된 종이 되고자 다짐했다.

### 선의 단계 (2)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주는 선의 차원에 이르면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의와 '틀'

자기적인 의와 틀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 "마음의 소원 응답받고 축복이 넘쳐요"

주일 성수를 통해 축복받은 고광규 장로와 손수건 기도로 영태의 축복을 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오르텐스 반돔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569호 2013년 2월 17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 믿음의 증거를 내보여야

## 2013년 주의 종 헌신예배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 '2013년 주의 종 헌신예배'가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송출되는 GCN 방송과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이 예배는 우리 교회 교역자 154명, 전국 지교회 교역자 68명, 해외 선교사 119명 등 총 341명이 함께했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중부지방회장 길태식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는 후 살롬 성가대와 닛시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가 있었다.

이어 헌신자 전체가 '값진 선물'이라는 곡을 특송함으로 마지막 때에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세워진 귀한 제단에 영광스러운 주의 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



강사 이재록 목사(좌)의 설교를 통해 헌신자들은 순종과 희생, 사랑으로 귀한 사명을 생명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날 이 목사는 '너희가 나를 믿느냐'(요일 3: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으실 때 행함과 진실함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주님 믿습디다, 사랑합니다.'라고 담대히 대답할 것이다. 믿음에도 행함과 진실함이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두려움으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십자가를 거꾸로 지키까지 생명 다해 충성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었다. 여러분도 확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참 믿음의 증거를 내보이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원하시는 참 믿음의 증거에 대해

"첫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으며, 얼마나 마음 중심에서 뜻을 받들어 순종했는가 하는 '순종의 증거', 둘째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하는 '희생의 증거', 셋째 성도들을 얼마나 영적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겼으며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었는가 하는 '사랑의 증거'가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헌신자들은 전 세계 70억 영혼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로 전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 순종과 희생, 사랑의 증거를 보이는 참된 믿음의 종이 되고자 다짐했다.

또 하나의 영적 분기점이 될 이번 헌신예배에서 헌신자들은 가나안성전 시대를 준비하는 현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주의 종이 되고자 새롭게 결단했다.

예수교일본연합성결회 총회에서는 성결의 복음으로 세계 교구화를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헌화를 했다.

한편, 2월 17일 주일 저녁예배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장로, 권사, 집사, 권찰, 교회 상근직원, 에스더(교역자 사모들), 기도제물 등이 '2013년 직원헌신예배'로 드린다.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가 함께하는 국내외 선교현황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선의 단계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와야 '온 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39~42에 “...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의 3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신의 손익을 먼저 따지지 않으며 선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개의치 않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원수 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어찌하면 그의 마음을 녹여 화평을 이룰까.’만 생각하지요. 선의 깊은 단계에 들어갈수록 현실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선으로 채워진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힘들게 여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이룬 만큼 영적인 빛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선의 2단계에만 들어가도 영적인 빛으로 인해 원수 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므로 시험 환난, 핍박이 물러가며 시험이 온다 해도 선으로 통과함으로 오히려 축복을 받지요. 하물며 선의 3단계에 들어간다면 약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원수 마귀 사단의 계계를 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으로 나온 상대의 마음이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에 감동을 받아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는 선을 행하는 사람의 영적인 빛이 너무나 강해 상대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 사단이 물러가고 상대의 마음에 남아 있는 작은 선에까지 그 빛이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이란 단지 착해서 쳐 주고 다 내어 주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 계계도 파하는 큰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혹여 ‘나는 아직 악도 온전히 버리지 못했는데, 언제 선의 2단계를 거쳐서 3단계에 이르나?’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아직 악을 온전히 버리지 못했어도 열심히 선을 행하고자 노력한다면 신속히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 자체가 선으로 일궈져서 선한 말과 선한 행실이 나오는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최선을 다해 선을 쌓아간다면 선이 나오게 됩니다. 선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하려고 노력하면 그만큼 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되 악이 온전히 벗어났다면 그때가 비로소 선의 2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의 2단계에서도 때에 따라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선한 말이나 선한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때론 상대에게 맞대응하지 않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떤 경우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선한 말을 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한 섬김의 행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선의 3단계에서는 이런 선한 입술의 말과 행함이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 ‘나는 상대가 악으로 나와도 마음에 아무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선한 말을 했으니 선의 3단계구나.’ 할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상대에게도 항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그를 선대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2.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생명이 아낌없이 주는 선의 4단계

가장 차원 높은 4단계의 선은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신 하나님의 선의 차원이요, 의인이나 선인만이 아닌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선의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사랑이라는 저주를 속량하기 위해 나무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흠 없는 보혈을 흘려주므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는 온전한 영의 자녀를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예수님처럼 생명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4단계의 선에 이른 분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32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거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너게 하는 등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늘 불평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런 백성인데도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로마서 9:3을 보면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지요.

여기서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이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로서 그들은 당시 심히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훼방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가운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자들도 있었지요. 이처럼 자신을 핍박하고 훼방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지언정 그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 이르면 원수 마귀 사단이 훼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권능을 받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의 가장 아름다운 처소인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보좌에 더 가까이 거해 세세토록 큰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름다운 선을 사모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신속히 온전한 선의 단계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죄악이 관영해 선을 찾아보기 어렵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불빛도 눈에 잘 띄는 법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심한 악으로 치닫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선을 행한다면 어둔 세상의 빛이 돼 많은 사람을 빛 가운데로 이끌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선에 이르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지난 호에는 악으로 대응치는 않으나 감정을 눌러 참는 1단계의 선과 마음에 어떠한 감정도 품지 않는 2단계의 선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선의 3, 4단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요?

## 1.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감동시키는 선의 3단계

선의 2단계가 마음에 악이 없기에 단지 악으로 맞서 대항치 않는 소극적인 선의 단계라면, 선의 3단계는 적극적인 선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으로 대항치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단계입니다.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해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으로서 이러한 선의 단계에 들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공요철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도보 10분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성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공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공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영적 성장을 하려면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뜨려야

**Q** 저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 일꾼으로 충성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영적 성장이나 축복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자기적인 의와 틀을 깨뜨려야 합니다. 영적 성장의 방해 요인이 되는 자기적인 의와 틀의 개념과 이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를 살펴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기적인 의란?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 많 습니다. 만일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한다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좇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적인 의에는 하나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세상적인 의가 있는가 하면,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만든 의는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진리를 많이 알고 어느 정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단계에서는 사명을 맡아 감당하기도 하고 열매를 내기도 하니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게 되고, 은연중에 자기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의식이 자리를 잡지요. 이처럼 진리로 포장되면 겉모양이 하나님 의와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일꾼들이 자기적인 의를 발견하기가 더 어렵 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허락함으로 욥처럼 자신을 발견 해 그것을 깨뜨려 주십니다. 자기적인 의를 깨뜨려야 범사에 하나님 뜻을 좇아갈 수 있고 풍성한 축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 자기적인 틀이란?

자기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히 굳은 것 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생 각의 틀을 만들지만 객관적인 사실이나 절대적인 진리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이 틀을 바탕으로 "맞 다.", "틀리다." 하면서 매사를 분별합니다.

이러한 자기적인 틀에도 세상적인 틀과 진리 안에서의 틀이 있습 니다.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 교양 등을 바탕으로 만든 틀이 있는가 하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곧 진리를 바 탕으로 만든 틀이 있습니다.

자기적인 의도 이 틀을 바탕으로 옳다고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입니다. 틀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 '틀렸다, 잘못됐다.' 하며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 다. 이처럼 의와 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의사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 문에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에게도 강한 자기적인 의가 있습니다. 가령 적극적으로 의를 내세 우지는 않지만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성격이라 목소리도 크고 자기주장 이 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의외로 자기적인 의가 강하지 않는 경우 가 있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잘 수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도 잘 포용합니다.

## 자기적인 의와 틀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

### | 판단 정죄하는 경우 |

주변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고 생각 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상대를 쉽게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상대 마음이나 그가 처한 상황을 잘 모르면서 선 불리 판단하거나 정죄하지요.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라는 자기적인 틀, 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잘 안다. 내 생각이 맞다.'는 자기적인 의에서 나온 판단 정죄입니다.

### | 불순종하는 경우 |

만약 윗사람이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불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틀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니 그 뜻을 파악하지 못한 채 행하게 되지요.

따라서 자신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 주변에서 아무리 권면해도 똑같은 행함이 반복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을

변연히 알면서도 그것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봅니다.

### |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 |

어떤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섬김에 대한 자기적인 틀을 만듭니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 윗사람이 심방을 갈 때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등 틀을 만들어서 가르치지요.

물론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자신의 욕심 에서 비롯했다면 자신조차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힘들어해도 믿음이 작아서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고만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상황과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품어 주지 못하면 상대가 은연중에 그 틀을 느껴 편안하게 갖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은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궁구하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진한 선의 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기적인 의와 틀을 발견해 깨뜨림으로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2 February

주요프로그램 안내!  
(2013.2.17~2.23)

####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장 6-10
- 육체의 결여 1-4
- 믿음의 분량 20-24
- 창세기 강해 19-23
- 지옥 1-4

#### GCN TV설교

-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3-7(이수진 목사)
- 백보좌 대심판 (이희진 목사)
- 감사의 조건 1-2 (김수정 목사)
- 'GCN TV특강' 십자가의 도 1-4(정규영 목사)

####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라이즈(2) 16-18
- 찬양과 경배 (3) 33-42

#### 해외성회 시리즈

- 에스토니아연합성회 2
- 페루연합대성회 - 종합편

#### 간증 프로그램

- 크리스천 투데이 26-29, 32, 36
-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2) 11-12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A/S 문의 1577-2073

저는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대학원을 마친 후 1990년, 삼성전자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제품연구 개발업무에 전념하면서 순탄하게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93년 이현정 권사와 결혼해 딸 가영이와 아들 정우를 얻었고, 1998년 7월에는 아내의 기도와 권유로 우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로부터 다섯 살인 딸 가영이가 귀신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믿거나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직면한 현실이기에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뒤 가영이는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았지요.

이 일을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온전히 주일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팀 전체가 야근을 하거나 밤새는 날이 많았고, 주일에 출근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 평일에 더 열심히 근무하며 전체 업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렇게 변함없이 행하니 회사에서 인정받아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지요. 더욱 섬기고 희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니 주변의 칭찬과 함께 제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작은 행함에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2000년, 휴대용 음향기기 개발회사로 이직한 후 개발팀 인원만 30명이 넘는 중견 연구소 소장이 됐지요. 2002년 10월에는 '이재록 목사 초청 인도 연합대성회'를 앞두고 선교비를 심고 기도를 받았는데 그 후 석 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 주일을 온전히 지키니 하나님 축복이 넘칩니다

고광규 장로  
(주식회사 미래엠앤에이치연구소 소장)



'2002 대한민국 기술대전' 산업자원부장관상, '2002 대한민국 디자인 및 브랜드 대상' 디자인경영 부문 최우수상, '벤처코리아 2002' 대통령상, '2003 세계디자인 포럼' 디자인상, '2003 미국 전자제품 전시회' 기술혁신상 등 무려 5개의 국내외 권위 있는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4년 8월 1일에는 당시 제가 다니는 회사의 축복을 놓고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코스닥 등록을 위해 준비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받은 다음 날 아침, 출근해 보니 성공적으로 코스닥 등록이 됐다. 이것이 아닙니까? 바로 전날 자정 무렵에 모든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기도받은 후 곧바로 얽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협상이 이뤄진 사실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2008년부터 저는 무선인터넷 공유기 개발 회사에 몸담고 있습니다.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범사에 하나님을 의뢰하니 하나님께서는 단기간에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에 2009년 한국에서, 2010년 러시아와 일본에서 제품을 인증받을 수 있었고, 개발 후 연간 매출 100억에 가까운 실적을 낼 수 있었지요.

저희 가족은 귀한 제단과 목자를 만난 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며 축복인지 깨닫고 매일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더욱이 종갓집 장손인 부모님께서 교회에 등록하신 후 집사 직분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권능의 기도로 잉태 축복을 받았어요”

오르텐스 반돔 성도  
(공교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



이슬람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1998년에 결혼해 다음 해에 딸 발레리를 낳았습니다. 그 뒤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며칠 만에 죽고 말았지요. 2005년에도 똑같은 일을 겪고난 뒤 원인을 알고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았습니다. 검사 결과, 풍진 바이러스 양성인데 치료가 어렵고, 더 이상 임신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지요.

2006년 2월, '이재록 목사 초청 공교 연합대성회'에 참석한 저는 설교 후 단에서 하시는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하얀 비둘기가 이재록 목사의 어깨에 앉는 것을 보여 주셨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고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의 간증 행렬을 보며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2008년, 저는 하나님 말씀에 담긴 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준 성경의 복음을 사모해 킨샤사 만민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간증수기 북어판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를 읽으며 세상 방법으로 도저히 치료받을 수 없었던 온갖 질병이 성령의 불로 단 한 번에 깨끗이 치료됐다는 사실에 큰 감동이 됐지요. 하나님께서 제 불임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

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2009년 4월, 만민중앙교회 부설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을 강사로 '공교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잉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설교 후 강사님께서는 전체를 위해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 주셨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 이때 임신할 수 있다는 확신이 왔고 벽찬 감동이 밀려와 감사의 눈물이 흘렀지요. 그 후 임신이 됐고, 아들 다니엘을 낳았습니다.

2011년 말, 꿈에 선명하고 커다란 4중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얼마 후 또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지요. 어느덧 출산일이 다가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진찰 결과, 쌍둥이가 서로 얽혀 있어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면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술 전 무안단물(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바닷가의 잔물이 단물로 변화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물)을 마시며 믿음으로 쌍둥이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후 건강한 아들 딸, 이란성 쌍둥이를 출산했고, 꿈에서 본 커다란 4중 무지개처럼 네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33-3 5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우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18 운현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령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상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기(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7487-171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천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총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